

바로북 서비스 확대 운영

익산시, 참여서점 6개소에서 8개소로... 가까운 서점에서 원하는 책 빌려 큰 인기

가까운 동네 서점에서 원하는 책을 빌려 볼 수 있는 '바로북 서비스'가 8월부터 확대 운영된다.

익산시는 바로북 서비스 참여 서점이 기존 6개소에서 8개소로 월 예산 한도액은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바로북 서비스는 읽고 싶은 책이 도서관에 없을 때 해당 도서를 협약된 지역 서점에서 바로 빌려볼 수 있는 서비스다. 익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1인당 월 최대 3권까지 신청 가능하며 대출한 도서는 14일 이내에 해당 서점으로 반납하면 된다.

시는 급증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난 6월 참여 서점 추가 모집을 진행했다. 그 결과 △그림책방 씨앗 △원보대서점 2곳이 추가되며 참여 서점은 모두 8곳으로 늘었다. 기존에 협약이 체결된 △대한서점 영등점 · 중



양점 △동아서점 모현점 · 영등점 △원서점 △호남문고 6곳에서도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또 8월부터는 월 예산 한도액을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보다 많은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바로북 서비스를 통해 올해 1~7월 익산시민 3,081명이 4,277권을 빌려 봤다. 월평균으로 보면 611권 상당으로, 전년(월평균 368권) 대비 66% 증가를

을 보이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 지난해 진행된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이용자의 94%가 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통상적으로 인기 있는 신간 도서를 도서관에서 대출하려면 최소 3~4주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바로북 서비스를 이용하면 서점에서 바로 빌려 보거나 서점에 책이 없는 경우라도 3일 이내에 이용할 수 있어 지역 주민들의 도서 이용 편의를 높였다는 평이다.

또한 협약서점의 경우 반납된 도서를 도서관으로 납품할 수 있어 이용자에게 직접적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도서 대출을 위해 서점에 방문했다 다른 책을 구매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부가적인 매출 증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익산=이재춘기자



익산시가 추진하는 우리동네 어울림정원이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우리동네 어울림정원 만들기'

익산시, 우수정원 기관 · 단체 · 유공시민 시상식 개최

익산시가 추진하는 우리동네 어울림정원이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녹색정원 도시문화 활성화를 위해 30일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에서 2023년 우리동네 어울림정원만들기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은 우수정원 14개 해당 기관 및 지역공동체에 대한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고 사업에 적극 참여해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한 23명의 유공시민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우리동네 어울림 정원 만들기'는 활동도가 적은 내대지, 쓰레기 투기지역, 유휴지 등에 음·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지역 공동체가 꽃과 나무를 심는 주민참여형 정원조성 사업이다.

시는 음·면·동 공모를 통해 지역 23곳에 우리동네 정원을 조성했다.

이번 시상은 전문가 심사위원 3명이

현장평가 및 주민참여 실적, 유지관리 인력 구성, 디자인 및 심미성 등을 평가했다.

최우수상은 왕궁면 공적비소공원이며 우수상은 영등2동 함께그린정원, 팔봉동 무양 행복정원, 삼성동 삼성달빛정원, 모현동 서아름 아름드리정원이 선정됐다.

장려상에는 성당면 쉼터정원, 망성면 포변 어울림정원, 함열읍 정동오거리 생생생정원, 용동면 용동수피아, 동산동 은하수정원, 마동 미래내정원, 삼기면 사오랑 행복 정원 송학동 달빛마정원, 용포면 꿈나들이정원을 선정했다.

정원을 시장은 "우리동네 어울림정원조성에 힘써주신 모든 시민들에게 감사드리며 시민 모두가 정원 자립이 가 돼 유지 관리에 힘써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지방재정공제회의 재해복구지원금 지원

특별재난지역 재정지원금 9499만9000원 지원 받아

익산시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재해복구지원금을 지원받는다.

시는 30일 열린 전달식에서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특별재난지역 재해복구 재정지원금 9,499만9,000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번 지원금은 대형 폭우로 피해가 큰 피해시설 복구와 재해예방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이인재)는 전국 자치단체 등을 회원으로 지방재정의 발전과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특별법인으로 2012년부터 회원지원사업 확대의 일환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치단체에 대해 재해복구 재정지원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양영철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경영혁신본부장은 "공제회 재정지원금이 신

속한 피해복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회원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지자체 재정지원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정원을 익산시장은 "자치단체 등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감사드린다"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달받은 재정지원금을 재해복구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익산=이재춘기자

익산사랑장학재단, 대학입시 맞춤형 전략 지원

(재)익산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정현욱)이 익산지역 고등학생 286명을 대상으로 5개월간 대학입시 맞춤형 전략을 지원하고 있다.

2023 진로 진학 상담 지원 사업은 지역·경제력에 따른 진로 진학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학생 스스로 자기 주도적인 미래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3학년뿐 아니라 1~2학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진로 진학과 학습권 신장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올해 대상 인원은 286명(1학년 107명, 2학년 118명, 3학년 61명)이다. 대



상자는 익산지역 18개 고등학교의 학교장 추천과 선착순 접수를 통해 선발됐다.

상담 기간은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이다. 학년별로 일정에 맞춰 1차 사전 상담을 진행한 뒤, 내신과 모의평가 성적, 생활기록부 등 관련 자료를

여러모로 분석해 1:1 대면 컨설팅을 본격 실시하게 된다.

앞선 8월 14~15일에는 고3 학생들을 상대로 대입 수시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전략 컨설팅이 진행됐다. 정확한 진단과 수시 지원 최종 결정을 위한 상담이 병행돼 높은 관심을 받았다.

고 대상자의 경우 오는 9월과 12월 두 차례, 고2 대상자는 10월 한 차례씩 1:1 대면 컨설팅이 이뤄진다. 진학 전문 상담가가 학생별 진로에 맞춰 생활기록부 세부능력 평가 기재 방향을 제시해 더욱 적극적인 학교 수업 참여를 위한 동기 부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고군산군도 국가지질공원 인증 수여식

군산시는 지난 29일 환경부가 주최하고 국가지질공원사무국이 주관하는 부산EXCO 지질공원 한마당에서 '군산시 고군산군도 국가지질공원 인증 수여식'을 통해 인증서와 인증 동판을 받았다고 밝혔다.

고군산군도 국가지질공원은 지난 6월 7일부터 13일까지 서면으로 개최된 제28차 환경부 지질공원위원회에서 국가지질공원으로 최종 의결돼 6월 21일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됐다.

고군산군도 국가지질공원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간직한 도서형 지질공원으로 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해안형), 진안·무주(산악형) 국가지질공원에 이어 도내 3호 국가지질공원이다.

특히, 고군산군도 국가지질공원은 약



99년 전(신원생대)에 형성된 독특한 모양의 암석과 약 9천만년 전(백악기)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암석을 배를 타면서 관찰할 수 있으며, 내륙에는 전기 백악기 시대에 살았던 40m가 넘는 거대한 육식공룡 발자국과 초식공룡들의 보행흔을 볼 수 있는 산북동 공룡 발자국 화석산지도 포함돼 있다.

/군산=김판곤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 전담부서 운영

군산시는 민원담당 공무원과 민원실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 모두가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 전담부서를 9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 전담부서 운영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폭언·폭행 등의 민원인 위법행위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행하게 됐으며 총괄 전담부서로 열린민원과를 지정, 운영하기로 했다.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 총괄 전담부서로 지정된 열린민원과는 민원인 응대과정에서 위법행위 발생 시 법적 대응을 총괄 하며,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해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필요할 경우 기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고향사랑기부금 선정자료 활용 설문조사

익산시가 고향사랑기부금을 더욱 의미있게 사용하고 고향사랑기부금사업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9월 8일까지 10일간 익산시 공식 SNS를 통해 고향사랑기부금사업 후보군에 대한 시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

설문대상은 △이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센터 △슬기로운 캠핑생활 △우리동네 문화해 △초등학교 돌봄 건강도사탁 지원 △어린이집 급간식비 추가 지원 등 총 14개 사업이며 이번 투표에서 시민 선호도를 조사해 기금사업 선정에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설문 대상인 14개 사업 외에도 사업발굴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며, 오는 10월 고향사랑기부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 사업들을 내년도부터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설문참여는 고향사랑기부제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이 제공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기자

